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 / 비매품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完工率 42.6%에 不過

施設投資크게 늘려야

"漁港은 어촌사회의 根據地"

어선被害 年平均 6百50餘隻

91年까지 漁港 기본시설 完備

어항은 수산업의 기지일뿐더러 어촌사회의 근거지로서 막중한 역할이 있음을 지적, 어항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하루빨리 기본시설을 완비하도록 수산업계가 촉구했다.

어선업계는 현재 어항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어선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업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업의 안정적 기반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도까지 전 어항의 기본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대망의 2000년대를 어항정비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청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투자를 늘려오고 있으나 완공항은 87년말 현재 전국의 1,941개항의 42.6%에 불과한 596개항이라고 밝히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난는 91년까지 연평균 1,087억원씩 모두 3,262억원을 투자할 목표아래 예산확보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적극 절충할 방침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60년도 이전 우리 나라의 어항시설(항만시설)은 빈약한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투자 규모가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관장부서도 해무청, 건설부, 농림부 등이 용도에 따라 분담개발, 일관성이 없었는데, 당시 소규모 어항은 정부 보조금으로 개발되어 왔다.

66년 수산청이 발족되면서 어항법 제정에 착수 69년 5월 19일 법률 제2106호로 본문 30조와 부칙으로 어항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어항개발에 나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76년이전까지 10년간 평균 14억원씩 총 145억원을 투자하였다.

수산청은 이어 77년에서 81년까지를 어항개발 정비단계로 설정, 제1차 연근해어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총 34억원을 투자하여 긴급대피항을 중점개발, 82년에서 86년은 제2차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을 포함시켜 모두 1,747억원을 투자하여 어항을 획기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투자확대에도 불구, 어선의 안전수용률은 87년말 현재 30.5%에 불과하며, 특히 어항시설의 미흡으로 연평균 657척(81~87)의 어선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명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464억원보다 무려 346억원이 많은 810억원을 반영,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과 적극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수산청은 요구액이 확보될 경우 기착수항을 조기완공시키고 방파제 등 외각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1·3種漁港시설執行計劃마련

금년도 1·3종 어항의 수축·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공사 위치와 시공사가 확정됐다.

수산청이 마련한 금년도 제1·3종 어항시설 집행계획에 따르면 25개항 수축사업에 3백68억4천1백만원, 7개항의 유지보수에 25억원 등 모두 3백93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라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 졌다.

수축·유지·보수 대상 어항과 공사위치,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괄호내는 시공사, 단위는 백만원)

■수축사업(25개항) 36,841

▲소흑산도(전남, 신안군, 흑산, 가거도, 5,250 삼부토건)
▲안흥(충남, 서산, 근흥, 신진도, 2,764 조흥공영)
▲양포(경북, 영일, 지행, 양포, 3,600 삼건사)
▲사천진(강원, 명주, 사천, 사천진, 1,800 신풍건설산업)
▲아야진(강원, 고성, 토성, 아야진, 900 신우건설)
▲덕산(강원, 삼척, 근덕, 덕산, 700 조흥공영)
▲대진(강원, 고성, 현내, 대진, 1,000 상호 산업)
▲외연도(충남, 보령, 오천, 외연도, 100)
▲연도(전북, 옥구, 미성, 연도, 1,500 대한토건사)
▲격포(전북, 부안, 산내, 격포, 1,300 대한토건사)
▲소안(전남, 완도, 소안, 맹선, 1,100 금광기업)
▲안마(전남, 영광, 낙월, 월촌, 1,200 남진건설)
▲서망(전남, 진도, 임회, 남동, 1,100 광남개발)
▲국동(전남, 여수, 국동, 700 남화토건)
▲어란진(전남, 해남, 송지, 어란진, 543 금광기업)
▲현포(경북, 울릉, 북면, 현포, 1,400 효성중공업)
▲사동(경북, 울진, 기성, 사동, 800 성보건설산업)
▲능포(경남, 거제, 장승포, 능포, 1,900 임광토건)
▲정자(경남, 울주, 강동, 정자, 1,000 성호)
▲방어진(경남, 울산시, 동구, 방어동, 910 임광토건)
▲물건(경남, 남해, 삼동, 물건, 1,300 영생토건사)
▲욕지(경남, 통영, 욕지, 동항, 600 영생토건사)
▲신양(제주, 북제주, 추자, 신양, 2,000 세기건설)
▲모슬포(제주, 남제주, 대정, 하모, 2,274 아남건설)
▲위미(제주, 남제주 남원, 위미, 1,100 서해)

■유지, 보수(7개항)(2,500)

▲금진(강원, 명주, 옥계, 금진, 366 삼건사)
▲녹동(전남, 고흥, 도양, 봉암, 567 금광기업)
▲마량(전남, 강진, 대구, 마량, 578 금광기업)
▲읍천(경북, 월성, 양남, 읍천, 300)
▲맥전포(경남, 고성, 하일, 준암, 289 대창기업)
▲도두(제주, 북제주, 도두, 50)
▲애월(제주, 북제주, 애월, 350 세기건설)

水産業界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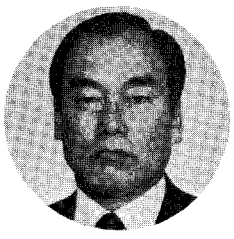
계획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을 포함시켜 모두 1,747억원을 투자하여 어항을 획기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투자확대에도 불구, 어선의 안전수용률은 87년말 현재 30.5%에 불과하며, 특히 어항시설의 미흡으로 연평균 657척(81~87)의 어선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명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464억원보다 무려 346억원이 많은 810억원을 반영,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과 적극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수산청은 요구액이 확보될 경우 기착수항을 조기완공시키고 방파제 등 외각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水産廳次長에 李羲秀씨



정부는 지난 6일자로 수산청차장에 이 희수 수산청 생산국장을 승진임명했다.

수산청에서 잔뼈가 굵은 이 희수차장은 61년 당시 농림부 수산국에서 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66년수산청 발족과 함께 생산국으로 자리를 옮겨 주일도수산관, 연근해과장, 국립수산진흥원장 어업진흥관, 생산국장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수산의 핵이라 일컫는 생산분야의 베테랑으로 자원조성과 불법어업근절, 어업분쟁의 조정역할을 무리없이 추진하기도 했다.

생산국장으로 재직시에는 수산연구단지조성, 연안어장목장화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부하직원들의 어려운 일을 적극 보살펴 주는등 보스 기질이 강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차장 약력 : ▲경남 하동 산(57) ▲부산수산대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일대사관 수산관 ▲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 중식담당관 ▲연근해과장 ▲국립수산진흥원장 ▲어업진흥관 ▲생산국장

漁港시설電算化 계획 業務推進 신속화 대처

수산청은 어항의 위치, 어항구역, 개발 연혁 등 어항시설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어항시설 전산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漁港豫算늘리고 投資促進해야할 까닭

金成斗〈전朝鮮日報 논설위원〉

漁港 時論

한마디로 어항이라고 부르지만 그곳은 단순히 고깃배가 드나들며 정박하는 항구의 구실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어항은 곧 어촌이다. 어촌이 있는 곳에 어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촌은 어항으로 되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어항은 곧 백만 어민의 소득의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다. 어민을 보살펴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먼저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어항은 고깃배가 출어준비를 하고 어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근거지이자 선수품을 공급받아 출항하는 고기잡이의 출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획물을 양육하여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유통의 시발점 구실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다. 태풍이나 폭풍·해일등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어선을 비롯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구실까지 도맡고 있다. 어항은 그와 같은 구실을 유감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민생활이 향상되며 어촌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이 말해 그동안 정부의 어항대책은 말 그대로 격화소양지감(隔靴搔痒之感)을 자아내기에 족했다. 수산당국으로서는 하느라고 해 나왔지마는 워낙 정부의 수산부문예산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업화 우선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전력투구를 감행해 나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여년동안 공업화는 정말 격세지감을 일으킬 만큼 크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공업화의 급속한 진척과 이 부분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질중투자의 권외에 밀려나 있던 농업 수산업등 저성장부문의 낙후성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어항과 어촌 사회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이 워낙 눈부신데 따른 것이다.

농림어업과 공업, 도시와 농어촌의 불균형발전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낙후된 어항을 건설하고 근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항시설이 보잘것 없다는 것은 어촌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극명하게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어항개발계획은 지지부진으로 진척이 느리다. 그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어선피해가 해마다 늘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어항건설을 위해 예산을 늘이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지금의 추세대로 나가면 현재의 미흡한 건설계획이나마 완공을 볼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1995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지금의 계획이 재빨리 완공한다 하더라도 어항과 어촌의 낙후성은 별로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물며 미흡한 계획이나마 완공될 날짜가 요원할 뿐이니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어촌과 어항의 지나친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좀더 대담한 어항건설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재정에 대한 무리를 배제하면서 어촌과 어항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여 불균형을 재빨리 시정하는 것은 어민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漁村과 漁港 落後性 克服 위해 國民經濟차원에서 不均衡是正

自然災害에 따른 漁船피해 해마다 늘어

漁港업계 懸案 李次長과 協議 孫井植 會長

손 정식회장은 지난 4월 7일 수산청을 예방하고, 신임 이희수차장과 면담,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를 빌어 어항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특히 명년도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요망했다.

손회장은 또한 4월 7일 수협중앙회 부회장에 취임한 이종휘 전 수산청차장을 예방하고 어항업계와의 유대를 간곡히 당부하고 어항업계의 현안해소대책을 협의했다.

손회장은 이밖에도 한국어선협회 전무로 취임한 이정식씨를 만나 양단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88漁港施設사업全貌

390億 投資

25個港 수축 7個港補修

趙洪濟어항과장

우리나라 연안에는 총 386개의 어항이 분포되어있는데, 수산청장이 직접 개발 관리하고 있는 1·3종 어항 61개항과 시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2종 어항 325개항으로 분류된다.

1·3종 어항의 개발율을 보면 총소요시설 65,829m중 87년도말 현재 37,852m를 시설함으로써 57%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시설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어항시설의 근간인 방파제는 26,983m중 19,432m를 시설하였고 물양장은 27,451m중 12,322m를 시설하였으며, 선착장 등 기타 시설은 11,395m중 6,098m를 시설하였다. 또한 1·3종 어항 완공율은 총 61개항중, 87년도말현재 26개항을 완공함으로써 42.6%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88년도 어항시설 사업의 투자방향은 첫째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하여 외곽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둘째 조기발주 및 태풍기 이전에 주요공정완성에 두고, 올림픽 이전까지 금년도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총390억여원을 투자하여 25개항의 수축사업과 7개항의 보수·보강사업을 병행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별로 시설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역별 거점어항 시설에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소흑산도항에는 52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복구 45m를 시공함으로써 86년도 「베라」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방파제 220m의 복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양포항은 36억원으로 방파제 연장축조 117m를 시공하여 방파제 계획 연장 총700m를 완성함과 동시에 방사제 300m를 단년에 완성함으로써 본항의 외곽시설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흥항은 87년도에 북방파제를 완성한데 이어 88년도에는 28억원으로 동방파제 48m를 축조하여 동방파제를 완성하고, 이어서 서방파제를 시공할 예정이다. 89년도에 서방파제가 완성되면 본항의 전체 외곽시설은 완공된다.

다음으로 일반 어항에는 252억원을 21개항에 투자하여 강원 사천진항을 완공하며 남북방파제 850m를 완성하게 되고 일출항로에 있는 1,900㎡의 수중암 준설도 병행 추진한다.

연도항은 15억원을 들여 북방파제 81m를 시공하여 남·북방파제 총연장 700m를 완성하게 된다.

계속 시공지구인 능포항은 19억원으로 서방파제 83m를 시공, 서방파제 총연장 180m를 완성하고 동방파제 111m를 병행시공하여 89년도까지 외곽시설을 완성할 예정이다.

태풍 진로권에 위치한 모슬포항은 23억원을 투자하여 서방파제의 연장 54m(하부공) 보강 280m 및 물양장 120m(하부공)를 시설하고 암준설 13,000㎥를 시행, 89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 대진항, 아야진항 경북의 울릉도 현포항, 사동항 전남의 소안항을 계속 시공하여 완공을 촉진하게 된다.

外廓시설에 優先 颱風期이전 完工

전북 연도항, 제주 신양항의 외곽시설을 완성하고, 경남 능포항 제주 모슬포항등 18개항의 계속시공지구의 기본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사천진항은 15억원으로 방파제 31m, 방파제 170m 호안 55m 물양장 297m를 시설함으로써 총계획시설인 방파제 492m, 방사제 365m, 물양장 380m, 호안 55m등 기본시설을 완공하게 되어 본항을 근거지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과 지역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신양항은 20억원을 투자하여 남방파제 90m를 시설함으로써 전외곽시설인 방파제 90m, 호안 35m, 물양장 56m(하부공)를 시설하게 된다.

86년도에 2종 어항을 1·3종어항으로 그 항종을 조정하여 87년도부터 정부에서 개발하게 된 전북도의 격포항 전남도의 안마항, 서망항 경남도의 물건항 제주도의 위미항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격포항과 물건항에 각각 1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30m와 54m를 연장시공하고, 안마항은 12억원, 서망 위미항은 각 1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를 계속 연장시공하게 된다.

특히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88년도부터 본격개발하게되는 강원도의 덕산항 전남도의 국동항, 어란진항과 경남도의 욕지항개발에는 덕산항과 국동항에 각 7억원, 어란진항에 5억원, 욕지항에 6억원을 투입하게되며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조기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88년도 어항보수·보강 사업은 전남도의 녹동 마량항에 각 5억원을 들여 잔여 시설인 물양장 112m와 125m를 각각 시설함으로써 총 계획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금진항, 경북도의 읍천항, 경남도의 맥전포항, 제주도의 애월항은 각 3억원 내외를 투자하여 어항여건에 따라 방파제, 물양장 및 수중암파쇄 등 긴요시설의 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기하게 된다. 이밖에 제주항만의 어항구역이 좁아 인근 도두항을 확장하기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7년도부터 착수한 동해 남해의 심해파추정 및 어항시설용사설계를 위한 천해파추정 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어항시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어항개발이 되도록 할것이며 기존어항 시설물의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을 단계적으로 견실하게 보강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4면의 지정어항 위치도 참조)

靜 動

회원가입

▲추자도 수산업 협동조합(조합장 박종현씨. 전무 박양규씨)
▲효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조석래씨. 대표이사 사장 손 상모씨)
▲한국어선협회 손영우 검사이사
▲한국어선협회 김진열 검사 관리부장.

회비납입

▲한국어선협회 이정식 전무(88연회비)
▲한국어선협회 손영우 검사이사(가입비)
▲수산청 이종휘 차장(88년회비)
▲세기건설 주식회사 양성후 대표이사(88년도 분담금)
▲삼부토건 주식회사 조창구 회장(87년도 분담금)
▲성보건설 산업 주식회사 박성태 사장(88분담금)
▲수협중앙회 회장 박 희재
▲합자회사 영생토건사 배환갑사장(88분담금).
▲한국어선협회 김진열부장(가입비및 연회비).

찬조금

▲수산청 조홍제어항과장. 김형인 공사2계장.
▲제주도 수산과 유상근 과장.
▲합자회사 영생토건사 배정문 전무는 어항 지 봄호제재 원고료 전액을 협회기금으로 쾌척.

청장출장

▲이동배 수산청장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경남지역을 초도순시, 어민과의 대화도 가졌다.

부음

▲남화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상욱 사장님의 모친께서 4월 6일 영명발인 4월 8일이며 장지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내방

▲국립수산물검사소 이창기 과장
▲현대해양 이대옥 국장
▲수산청 어정국장 김갑부
▲수산청 시설국장 김시문
▲수산청 공보담당관 이용숙
▲수산청 용도계장 최재양
▲한국유통(주) 이왕열 대표이사
▲한신욱 초대시설국장
▲미역가공협회 상무이사 신관수
▲농축수산 유통정보 박준현 기자
▲효성중공업 전설사업부 홍석희 대리
▲김포한국항공 임승언 감사
▲창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호종
▲어선협회 이정식전무
▲주택은행 언주로지점장 김규수
▲성보건설 산업 주식회사 박성태 사장
▲한국어선협회 이현수 기술이사.
▲문원사 김재극 사장.
▲합자회사 영생토건사 배환갑 사장.
▲범신기획 김일재 회장.

김영환씨 임명 본회 상무이사

한국어항협회는 공석중인 상무이사에 전어선협회 전무 김영환씨를 지난 4월 1일자로 임명 발령했다.

협회는 지난 3월 7일 김영환상무이사 임명등의 안건을 제4차 이사회에서 면으로 부의, 재적이사 1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산청에 승인 신청, 지난 4월 1일자로 인준을 받았다.

積算方法 안지켜져 規定준수建議

日漁港건설協會

全日本漁港建設協會는 어항관계사업의 工事積算등에 대해 各縣마다 不均衡이 보이는가 規定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최근 水産廳에 대해 各縣事業主體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요망하는 진정을 냈다.

요망사항은 作業船의 回航費등 다음 5가지.

一、작업선의 回航費에 대해=①작업선의 回航費의 算定은 작업선의 配備狀況을 감안 적절한 基地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비용을 계상, 積算하도록 되어있다. ②공사기간중 태풍이나 보통의 波浪에 따른 악천정박이 불가능한 現場일때는 필요에 따라 안정정박을 위한 回航費 및 曳航에 드는 경비는 이미 積算上 인정되며 실적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처리되도록 되어있다.

이상의 取扱에 대해 아직 積算이 안되고 설계변경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있는 縣도 있다.

二、警戒船의 配備등에 대해=港則法이 적용되는 어항구역내에서 어항공사를 산시하는 경우의 공사허가신청의 事務處理에 대해서는 事業主體(都道府縣 市町村)와 해상보안본부間에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또 사전협의결과 경비선의 配備가 필요한 경우는 그비용을 계상토록 되어있으나 아직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都道府縣을 볼수 있다.

三、裏埋土등의 취급에 대해=岸壁, 護岸등의 裏埋土나 埋立用의 埋土에 浚渫土를 流用하는 경우 준설토의 토질등을 고려하여 實狀에 맞는 積算方式에 따르기로 되어있으나 아직도 實行되고 있는 縣이 없다.

四、블록製作야드의 취급에 대해=블록제작야드의 설계, 積算에 있어서는 ①適正(面積, 다른 工事와의 調整, 사용기간 도로사정, 작업선접안 및 積載상황등을 고려)한 제작야드가 계상 확보되어 있을것 ②야드의 借地料, 유지관리비, 야드로부터 附着現場까지의 見積, 운반, 假轉置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計上될것 ③工事發注에 있어서는 사용기간등 구체적인 조건이 明示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도 그 취지가 철저히 反影되지 않고있다.

五、공사사진의 촬영·정리의 省力化에 대해=어항공사는 그 대부분이 海上 또는 水中에서 행해지며 工事完成후는 主要부분의 대부분이 확인(目視)되지 않기 때문에 그 工事사진은 주요한 자료로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촬영이 요청되고 있다. 이때문에 受注者는 工事사진의 촬영과 工事사진첩의 정리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다.

漁港建設協會에서는 먼저 「漁港工事寫眞撮影法」의 핸드북과 특징이 있는 工事사진첩을 작성하여 全會員에 배포하여 적절한 工事사진의 촬영·정리의 省力化등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취지가 스며들지 않은 縣을 볼수 있다.

이상의 요망사항에 대해 水産廳은 어항관계 주무과장회의를 열고 지도력의 철저를 펴하고 있다.

해외수산단신

漁港法案채택

日本衆議院 農水委채택

日本의 衆議院農林水産위원회는 지난달 23일 漁港法의 일부개정법안과 漁港정비계획의 변경(제8차 漁港정비장기계획)을 채택했으며 25일의 본회의에서 可決 參議院에 送付했다.

이 법안의 채택과 함께 있은 付帶決議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漁港은 어업생산의 기반, 수산물 流通·加工의 거점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으로서 극히 주요한 구실을 하고있는데 어항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漁港의 機能의 고도화,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漁港의 정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① 漁港정비의 현상과 새로운 漁港정비계획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完全達成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것

② 漁港法이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漁港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어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對應하여 적절히 再檢討할것.

③ 새로운 계획에 따른 漁港정비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水産業을 핵으로한 연안 근해域의 종합적인 정비개발에 기여하기위하여 때를 같이하여 책정되는 제3차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제3차 沿整) 및 新沿岸漁業構造개선사업(後期대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有機的 효율적으로 추진할것.

④ 漁港정비에 관계되는 國庫補助 및 부담율의 삭감에 따른 地方公共團體의 재정지출증가에 대해서 地方交付稅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

漁港整備강연회

沖縄縣

일본 오키나와(沖縄)어항협회는 지난달 나하(那覇)시의 오키나와縣 수산회관에서 제15회 어항강습회를 열었다.

이 강습회는 漁港整備事業이 순조롭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것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는데 縣內의 각 市町村에서 과거와는 달리 약 140명의 어항관계자가 출석했다. 國家와 縣, 市등의 어항이나 수산행정의 전문가 6인이 강사로 나서 각각의 테마에 따라 강연했다.

올해에 출발하는 제8차 漁港整備계획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해서 예년에 없는 열기를 보이는 강습회가 되었다. 강습회벽두에 인사에 나선 시모카도(下門律善) 오키나와 漁港協會회장은 「오키나와縣의 어항은 國家의 정비계획에 따라 빠른 정비실적을 보여 왔으나 여전히 未整備항도 많고 다른 府縣과 비교해보아 「어항의 근대화」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제자리걸음의 느낌이 있다.

어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항의 변화는 언제나 先導的 역할을 다해왔다.

수산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향해 마리노베이션 構想을 했으나 다른 機關에서도 해양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어서 새로운 전개방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88년도는 제8차 漁港정비계획이 스타트하는 중요한 해로서 漁港관리자, 이용자인 여러분은 더한층 기술향상, 지식습득에 노력 오키나와縣의 어항정비추진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마키(山城正榮) 縣 농림수산部次長은 「오키나와縣은 바다로 둘러싸여 니리이카나이信仰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옛날부터 바다를 생산의 터로, 생활의 터로 해왔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정신문화를 포함 어떻게 水産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검토, 마리노베이션 構想을 내놓았다.

地区別水協

"漁港사후관리 徹底"

水産廳지시, 損懷부분 補修·廢船철수등

落島어항 活用方案도 관계規定改正검토

수산청은 일부 1·3종 어항시설의 사후관리가 소홀, 손괴된 부위를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어항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폐선을 계선시키는 등으로 어항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을 들어 어항관리를 대행하는 지구별 수협에서 손괴부분에 대한 보수는 물론 폐선 철수 등 어항의 사후관리에 철저토록 촉구했다.

수산청은 또한 새로 축조된 어항과 낙도의 어항에는 급유시설과 냉동·냉장시설, 선수품 공급 등 기능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고 이러한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 척수가 적은 등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기능시설인 급유·급수시설·위판장·냉동공장 등을 수협이 주도하여 시설하도록 당부했다.

수산청은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1·3종 어항을 당해 지역의 지구별 수협조합장이 관리 대행자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지구별 수협에서는 어항의 경미한 손괴를 보수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요망하고 어항 사용중의 손괴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어항시설의 무단사용이나 정비에 대한 현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아울러 당부했다.

수산청은 무단점용을 처벌하며 한편 어항관리 대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어항관리비에 충당하고 어항관리권도 완공된 어항은 지방관청으로 이관하여 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법의 관계규정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法令整備 水産政策 方向등 討論會

수산청은 수산정책 토론회를 열고, 수산정책의 평가와 2,000년대를 향한 수산정책, 수산관계 법령의 정비방향, 수산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방안등을 토론을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오는 4월 18일 하오 이동배 수산청장 주제로 한국어항협회 회장등 수산관련 단체장과 학계, 언론계, 어민대표와 함께 수산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그동안의 수산행정 성과를 분석하여 수산시책 방향도 설명한다.

과천에 있는 정부제2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이날 토론회에는 수산청 이회수차장과 각실국장을 비롯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등 40여명과 관련단체장 학계 언론계 인사 어민대표가 참석한다.

관련단체장, 수협중앙회, 수산행정자문위원회, 농촌경제연구소, 원양어업협회, 어선협회, 수산진흥회, 한국수산물수출조합, 한국어항협회, 한국미역가공협회, 한국내수면협회, 부산공동어시장, 전국수산인회, 인천수산인협회, 한국연합양어협회(이상 14명) 학계, 부산수대, 여수수대(이상 2명) 언론계 농수축산신보, 수산신보(이상 2명) 어민 업종별및 제조업수협(16명) 지구별수협및 자생단체(15명).

사천진항 외항 방파제 연장안해

수산청은 사천진항 방파제 외항을 현지 조사, 방파제를 연장해도 설계파 이상의 큰 파고가 일 때에는 어선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현지 어민에게 통보했다.

강원도 명주군 사천진 사천진리 어민과 명주군 수협은 사천진항 외항의 암초 때문에 어선출입에 지장이 있음을 들어 방파제 100m를 연장해 주도록 수산청에 건의했다.

수산청은 그동안 현지 상황을 조사, 500m 상거에 암초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인한 어선 입출항시 지장유무를 해양연구소에 검토해 주도록 의뢰했는데, 해양연구소 현장 조사를 통해 평상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다만 설계파 이상 큰 파고가 일 때에는 다소 영향이 있으며 어민이 요청한 방파제를 연장해도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고 분석, 방파제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어선 입출항시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시 암초제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창립 26주년 "새어민상" 시상

수협중앙회는 지난 1일상오 천도교강당에서 박희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임직원과 어민대표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6주년 기념식과 제17회 새어민상 및 제6회 어민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협중앙회가 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어촌건설에 공이 많은 어민지도자를 선정, 시상하는 「새어민상」은 올해 영예의 자립상(대상)에 고시화씨(51·서귀포수협법환어촌계장), 자조상에 이옥식씨(42·군산시 수협야미 어촌계장), 협동상에 이성모씨(58·죽변수협현내어촌계장), 근면상에 한원구씨(60·고성군수협교암어촌계장), 노력상에 최현돌씨(39·양산군 수협문중어촌계 총대등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올해 어민봉사상은 일선사업현장에서 대어민봉사에 공이 많은 조광래씨(48·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4급)가 수상했다.

月間短信

신조선에 한해서 수입을 자유화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하게될 수입자유화품목에 포함된 어선은 별도공고에 의해 신조선에 한해서만 수입이 자유화 된다.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상공부가 고시한 수출입공고에는 모든 어선이 수입이 개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고품이나 산업폐기물, 그리고 절차간소화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별도공고에는 중고선은 현재와 같이 계속 도입이 억제 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것.

또 수출입 별도공고에서 수입이 자유화된 어선을 운항실적이 없는 선령 1년미만의 어선으로 되어 있어 신조선의 경우만 수입이 자유화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조선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무역역조등을 감안, 일본에서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범어촌 사업 내년부터 확대

수산청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어촌 사업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해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어촌사업은 저소득어촌을 일정소득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촌계의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등을 정부가 국고보조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과 경남에 각각 1군데씩 선정한 시범어촌을 내년에는 각 도마다 1군데씩을 선정,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이에 따라 각 어촌계 한군데당 2억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지원율은 국고 70% 지방비 20% 어촌계 자담 10%로 지원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어장정화 사업을 펼쳐 소득수준을 높이게 된다.

한편 올해 시범어촌은 전라남도는 완도군 수협 부상어촌계를 선정, 전북양식과 방파제 사업 등을 펼치도록했으며 경상남도는 현재 선정중이다.

▲전북:식산국(서기관 국승록) 수산과(수산기좌 길일옥) 시설계(최준강, 김학모) 0652-2-4411(2-7044)

▲전남:식산국(서기관 이응호) 생산과(수산기좌 오영출) 시설계(고유석, 이승환) 062-22-0011

▲경북:식산국(서기관 김봉구) 수산과(수산기좌 김통길) 시설계(서석희, 조기현) 053-93-0811(93-1822)

▲경남:식산국(서기관 구자경) 생산과(수산기좌 정창식) 어항계(신기덕, 안승택) 0551-창원83-1121(84-11129)

▲제주:식산국(서기관 임재호) 수산과(수산기좌 유상돈) 시설계(홍성삼, 김석고) 064-27-0131

水産業法施行令개정

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어장의 수심·수면의 한계를 새로 정하고 어장간의 거리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연근해와 원양어선의 부속선 종류와 척수등을 별도의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김제조업을 신고업으로 지정했다.

회원 인터뷰

"國土保全次元에서 漁港을 管理"

「어항을 어업의 근거지라든가 어촌 사회의 핵으로 보는 것도 옳지만 보다 더 국토보전적인 차원에서 시각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2일 「항만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을 수상한 삼견사 정덕용(鄭德容)사장은 3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특히 인구가 과밀한 상태에서의 어항은 국토보전과 연관시켜 투자를 늘리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방치되다시피한 자연항도 모두 방파제로 알맞게 막아 어항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도로 씻겨나가기 쉬운 연안 곳곳에 TTP 5~6톤 짜리를 박아 단 한치의 국토도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을 보았을때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어선이 척수라든가 규모가 워낙 취약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어선의 일방적 증선은 바람직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어항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됐읍니다만, 일본은 금년을 기점으로 제8차 어항정비사업을 개시했는데 어항을 해양목장화의 핵으로 설정하는 막중한 비중으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읍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 소관부서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조만간 더 도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협회도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어항협회는 5년전부터 발족시키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항협회의 설립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 시공업체도 어항을 시설할때 공사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나라 수산업 진흥에 역군이다, 내가 어민을, 어촌을, 수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발족한지가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얼 바라겠읍니까만, 그동안 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회지라든가 어항소식 발간도 그중의 하나이고, 아울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鄭德容 사장은 어항협회가 하루 빨리 궤도에 올라 「항만의 날」처럼 어항업계도 참여하는 가칭 「수산의 날」 제정에 앞장서서 우리 어항업계와 어민,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두모여 푸짐하게 한마당 굿판을 벌이고 이 자리를 빌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의 건승을 기원하며 새로운 다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는 기자의 손을 덥석 쥐고 힘차게 흔들었다.

"항만의 날" 산업 훈장 수상한 鄭德容사장

漁船수용 勘案어항修築 품셈現實化 되었으면…

漁港修築 위한 地方庁 설치등

水産行政機構조정検討

·수산청은 수산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능률적으로 보강키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市道별 漁港관련 部署명단

최근의 시·도별 어항관련 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새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지역경제국(국장 이사관 길중건씨) 수산과 시설계에서, 경남은 식산국(국장:서기관 구자경씨) 생산과 어항계에서, 전남은 식산국(국장:서기관 이용호씨) 생산과 시설계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동해출장소(소장:부이사관 나기정씨) 수산과 시설계에서 어항행정을 맡고 있다.

시·도별 어항관련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경제국(이사관 길중건) 수산과(수산기정 김지대) 시설계(박인규, 장재석) 051-463-5161

▲인천:지역경제국(서기관 유정희) 수산과(수산기좌 김광휘) 어정계(서부길, 배경철) 032-427-0011

▲경기:식산국(서기관 박창곤) 수산과(수산기좌 정상석) 시설계(조원명, 양낙모) 0331-42-6161

▲강원:동해출장소장(부이사관 나기정) 수산과(수산기좌 김봉래) 시설계(김부경, 김문수) 0391-주문진 5-3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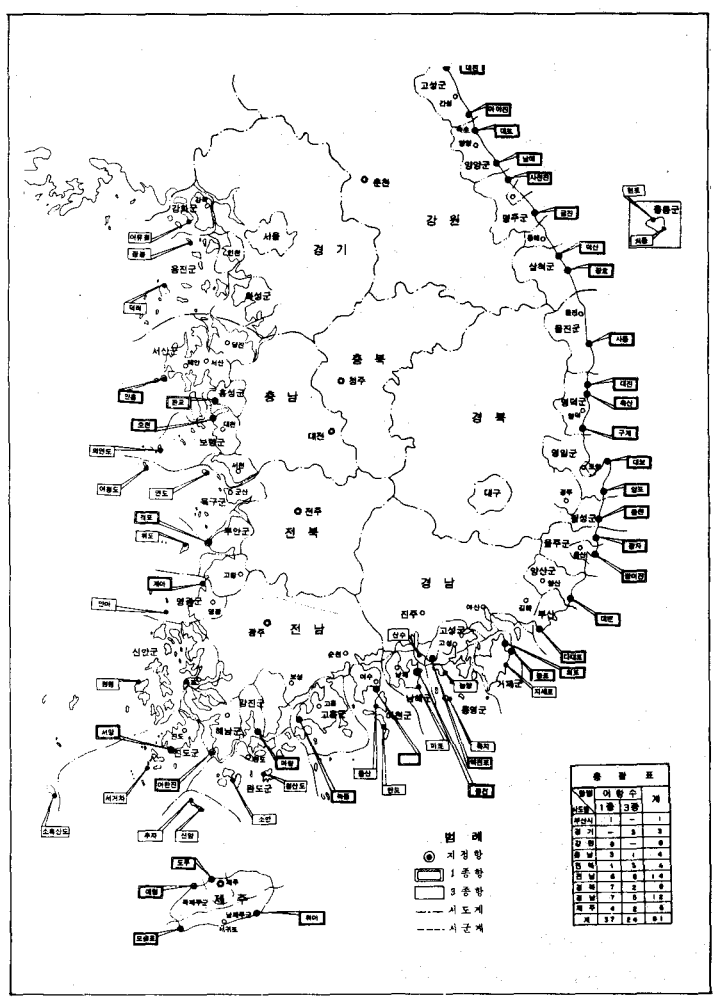
▲충남:식산국(서기관 박현수) 수산과(수산기좌 김풍원) 시설계(이상만, 송정훈) 042-23-9011

漁港教室

指定漁港位置圖

우리 나라 해안안선 길이 12,800km의 전 연안에 1,941개의 항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어항법에 따라 수산청이 지정관리하는 1·3종 어항 61개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항인 2종 어항 325개, 어항법과 무관한 어촌부락 단위의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군소, 소규모 어항 1,555개가 있다.

어항 개발에 있어서는 1·3종 어항은 순수 국비로 수산청에서 지방항인 2종 어항 및 소규모항은 개발비의 50%를 정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시도에서 연차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다.



총 괄 표			
구분 / 시도별	어항수 1종	어항수 3종	계
부산시	1	-	1
경 기	-	3	3
강 원	3	-	3
충 북	3	-	3
충 남	1	5	6
전 북	6	8	14
전 남	7	2	9
경 남	7	8	15
제 주	4	2	6
계	32	28	61

봄철의 영양관리

건강하게 오래삽시다

입맛 돋구도록 봄나물을 섭취

정장작용도 도와야

영양소 더욱 필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면 우리의 몸도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켜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세포의 신진대사도 왕성해져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와 영양소의 필요량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봄이 되면 우리 몸은 대개 나른하고 노곤해지며 졸음이 쏟아지고 입맛이 없어지는 이른바 춘곤증(春困症)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춘곤증은 기온이 상승하고 낮 시간이 길어져 활동량이 많아진 탓이기도 하지만 겨울동안 김장김치, 육류, 흰쌀밥 등의 반복되기 쉬운 식사로 인해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의 부족이 누적되어 뇌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체내 조절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춘곤증쫓으려면

그러면 이러한 춘곤증을 쫓고 활력있게 봄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들의 적절한 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봄철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산뜻한 봄나물로 입맛을 돋우도록 한다. 식탁에 봄을 선사하는 봄나물들은 색깔이나 풋풋한 향기가 식욕을 증진시켜 주고 연한 섬유소가 많아서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정장작용을 돕는 일을 한다.

봄나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수분이 많고 칼로리는 적으며 비타민 A,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나이아신 등이 비교적 풍부하고 칼슘, 철분을 보충해 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요즈음엔 온상으로 채소를 재배하여 겨울에도 신선한 야채를 구입할 수 있지만 제철에 나는 채소에 비해 맛과 영양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가격과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각을 돋우어 주는 봄철의 나물로는 냉이, 달래, 쑥, 원추리, 돌나물, 들미나리, 씀바귀, 울릉도취, 두릅 등이 있다. 이밖에도 상치, 쑥갓, 아욱, 시금치, 쪽파, 갓, 겨우살이배추, 봄무 등의 봄채소로 입맛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조리도 잘해야

이들 채소가 우리의 식생활에 공헌하는 여러가지중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채소를 조리할 때는 이러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조리방법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소 고유의 색깔과 풍미를 잃지 않도록 조리해야 한다. 즉, 채소를 데칠 때는 센 불에서 짧은 시간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비타민 C를 비롯한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이때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채소고유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채소는 또 삶아서 무친 요리보다는 기름이나 마요네즈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조리하는 튀김, 볶음, 샐러드 등의 요리가 비타민과 무기질의 손실이 적고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여준다.

주식은 쌀에다가 보리, 콩, 팥, 조, 수수 등을 섞어 밥을 짓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도정한 쌀에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 B_1과 무기질을 보강할 수 있다.

비타민 B_1은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이것이 부족하면 조금만 일을 하거나 약간의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에서도 당장 피로하기 쉽고 피로의 회복도 느려지게 된다. 피로하면 위의 운동이나 위산과 소화액 분비가 덜 되기 마련이어서 자연히 입맛도 떨어진다.

비타민 B_1 많은것을

그러므로 곡류의 배아, 건조된 이스트, 돼지고기, 간, 붉은 팥, 강남콩, 깨소금, 날밥, 탈지분유, 잣, 땅콩 등 비타민 B_1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봄철에는 또 신체적 활동이 많아져 그에 따른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므로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조기, 병어, 가자미, 대합, 바지락등 봄철에 많이 나오는 신선한 어패류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변화있게 조리하도록 한다.

요즈음 미용식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과일과 야채만을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단백질로 된 피부가 과일과 채소만으로 고와질 수는 없다. 조직을 만들어 내는 영양소 없이는, 피부는 탄력성을 잃고 건조해지며 잔주름이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갖춘 과일 및 야채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여 훌륭한 조절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되 봄철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야채와 양질의 단백질 식품에 특히 유의하여 봄철식단을 계획하도록, 해야겠다.

정장작용도 도와야

뜻을 잘못 알기 쉬운 낱말은 대단히 많다. 표준말을 모른다거나 문법의 까다로운 규정을 모르면 낱말 선택시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 뜻을 전하게 된다.

「끝이다」와 「그치다」의 경우처럼, 발음은 비슷하나 표기가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 그리고 소리는 전혀 다르나 뜻이 혼동되기 쉬운 말들을 한데 묶어서 간결하게 설명하겠다.

한글 바로 씁시다

가끔 비=이따금 비.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 비. 때때로 비=「가끔 비」와 같은 뜻.

다리다=옷을 다리다. 달이다=약을 달이다.

나아가=앞으로 가다.(進, 向上)

나가=안에서 밖으로 나가다.(出)

한때 비=한동안 비. 여러 차례가 아닌 한차례.

나라야=나라야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만」과 함께 쓰일 때가 많다.

마감=정한 기간의 끝. 막음=막는 일.

래야=월급이래야 쥐꼬리. 「나만」과 함께 쓰이는 일이 없다.

바지춤=바지의 허리 부분을 접어 여민 사이. 허리춤=바지·고의 따위의 허리와 살과의 사이. 치마 허리와 속옷과의 사이.

사립문=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생활경제 ═ 생활경제

국민주는 이렇게 보급됩니다

■국민주는

- 국민의 중하위 소득계층에 우선 배분합니다.
- 국민주 매입여부를 국민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저소득계층의 구입기회 확대를 위해, 할인, 융자혜택을 부여합니다.
- 주가안정장치를 마련합니다.

■보급계획은

- 88년 이후 5개년 간에 걸쳐 약 5조원 상당액의 주식을 보급합니다. 88년중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부터 우선 보급하며 다른 공기업을 89년 이후 단계적으로 보급합니다.

■국민주 매입은

- 국민주청약예금을 가입하신후 10일 경과하고 국민주 청약이 공고되면 청약예금가입 금융기관에 가셔서 매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주신탁 가입

- 청약하실 때 직접 매입이나 신탁 가입중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읍니다.

■할인 혜택

- 직접 매입자중 희망하시는 분 또는 신탁가입하시는 분은 할인매입하실 수 있읍니다. 다만, 직접 매입하시는 분은 신탁가입하시는 분의 신탁기간과 같이 3년간 예탁하셔야 합니다.

■융자 혜택

- 국민주 신탁 가입자중 월급여(소득) 40만원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자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자 중 저소득 농어민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융자해 드립니다.

■국민주 매입방법 및 절차는

- 중하위 소득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은 24개 전 금융기관에서 88년 3월 7일부터 취급하는 국민주청약예금을 가입하신 금융기관 점포에서 국민주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국민주 청약서와 함께 국민주신탁 가입, 융자신청도 동시에 하실 수 있읍니다.

■중복청약금지

- 청약은 중하위 소득계층, 우리사주조합원, 일반청약중 한 부분에만 가능하며, 중복청약이 발견되면 모두 무효입니다.
- 국민주청약예금 가입시 가입대상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가입하는 경우(세대주가 아니거나 월소득이 60만원이 초과하는 분)는 수시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 등을 사후 확인하며, 확인결과 자격이 없으신 분이 예금 가입한 사실이 발견되면 예금의 해지 및 청약자격을 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가입

-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전국의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세대주 본인에 한하여 1구좌만 가입하실 수 있읍니다.

■예금의 종류

- 국민주청약저축예금 :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저소득자
- 국민주청약예탁금 : 농어민(농, 수, 축협 단위조합에서만 취급)

■예금의 기능

- 최저 1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가입후 10일 경과 후에 국민주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 예금액이 바로 청약증거금으로 처리되며
- 주납입금도 본 예금구좌에서 자동납입됩니다.

■가입방법

- 취급 각 금융기관에 대상자별로 사업주, 이·동장, 읍·면·동장의 확인서 등을 구비하신 후 본 예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주신탁에 가입하려면

- 국민주 청약시 국민주 신탁에 가입하려면 신청서류를 내야합니다.